



광주의 추억 영원히... 14일 오후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U대회' 폐회식 문화행사가 화려한 조명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

## 젊음·열정 행복한 12일 광주유니버시아드 폐막 광주, 참 잘했다

세계 대학생들의 울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가 14일 광주 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2·3·4·5·10·14면〉  
‘창조의 빛, 미래의 빛’을 슬로건으로, 143개국 1만3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지난 3일부터 12일간 젊음과 열정을 발산하며 우정 어린 경쟁을 벌였다.

한국은 역대 U대회 사상 최초로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폐회식은 ‘창조와 미래의 빛, 세상과 함께하다(Sharing the Light)’를 주제로 대회를 빛낸 선수와 운영요원,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어우러진 흥겨운 잔치였다.

각 국의 선수들은 국가 구분없이 함께 어우러져 경기장으로 들어왔다. 한국은 리듬체조 3관왕 손연재(21·연세대)를 비롯해 약 60여 명이 참가했다.

김황식 조직위 공동위원장의 환송사, 클로드 루이 갈리앙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의 폐회사와 함께 대회가 내려지면서 광주U대회의 폐막이 공식 선언됐다. 이어 대회는 2017년 대회 개최지인 대만 타이베이에 넘겨졌고, 밤 8시40분부터 약 20분간 ‘2년 뒤 재회를 기대하며, 타이베이의 무대가 펼쳐졌다.’

밤 9시부터는 흥겨운 축제가 이어졌다. 댄스 퍼레이드, 초청가수인 EX-ID, 사이니, 지누션, 김경호 밴드, 구준엽 등의 공연이 폐회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은 금메달 47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29개를 획득해 러시아(금 34, 은 39, 동49개)와 중국(금 34, 은 22, 동 16개)을 제치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 성적도 운영도 역대 최고...지자체 국제행사 새 모델

### U대회 성공 UP 그레이드 광주

#### (1) 최상의 메가 이벤트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가 12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U대회는 국내외에서 ‘성공 대회’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에 ‘빛고를 광주’의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 친환경·평화·IT·문화가 어우러진 ‘EPIC’ 대회 국내외 찬사 잇따라...‘亞太문화수도 광주’ 세계 과시

존재감을 뚜렷이 남기게 됐다. U대회가 최상의 메가 이벤트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여러가지 성공 요인이 뒷받침됐다. 무엇보다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시민 참여로 지역민들의 애환심과 자부심, 공동체 의식이 더욱 빛나는 대회였다. 광주 U대회를 통해 수년째 지속된 지역경제 침체와 ‘호남 소외’라는 지역적인 차별로 실의에 빠진 지역민들에게 자긍심과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메르스’로 실추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대회 이념인 친환경(Eco), 평화(Peace), 기술(IT), 문화(Culture)가 어

우러진 ‘EPIC’이 대회 전반에 걸쳐 실행되면서 기존 국제 스포츠대회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대회 이념에 충실했던 대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대회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는 동시에 독특한 남도문화 자산 활용을 극대화해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으로 승화했다는 점은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이번 대회는 지역에서 치러지는 ‘메가 이벤트’(Mega Event)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다. 즉, 일부에서 단체장의 치적용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불러오는 재정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고, 대회를 통해 지역을 최대한 알렸

며 사후 경쟁력 제고의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는 ‘절약대회’의 원칙에 따라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했다. 경기시설 신축을 최소화하고 재건축을 통한 선수촌 건립, 재정규모 최소화 등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대회를 실현했다는 성과를 남겼다.

또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대회운영통합시스템(TIMs·Total Integration Management System) 운영과 온라인 실시간 방송국 ‘유니브로’ 등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선보이면서 최첨단 IT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나눔과 연대, 평화를 통한 광주의 세계화도 돋보인 대회였다.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선수들에 대한 시민

들의 적극적인 자원과 후원이 이어지면 서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세계화하는 성과도 남겼다.

대회 기간 중 광주 도심은 세계 청년들의 ‘난장’으로 흥겨움과 즐거움이 넘쳐나면서 ‘젊은 도시’ 광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고, 남도 팸투어와 각종 문화행사가 인기 상품으로 꼽히면서 광주가 갖고 있는 ‘아시아 문화수도’의 잠재력을 보여 준 계기가 됐다.

대회 성화는 꺼졌지만 더 큰 과제도 남아있다. 광주 도시마케팅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U대회 개최 효과를 최대한 확대·재생산 하기 위한 ‘포스트’(Post) 유니버시아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도시 각 분야의 대대적 업그레이드 운동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별취재단=최권일기자 cki@

### ■ 광주U대회 최종 메달 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대한민국	47	32	29
2	러시아	34	39	49
3	중국	34	22	16
4	일본	25	25	35
5	미국	20	15	19
6	프랑스	13	9	8
7	이탈리아	11	15	17
8	우크라이나	8	17	6
9	이란	7	2	6
10	대만	6	12	18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가져와  
피부에 빛을 머금어 빛나는 빛이 되게  
속해선 어린 피부로 되살려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